

# 근대 동아시아의 번역 서학서 유통과 지식의 확장 과정에서 서양인의 역할

허재영(단국대학교 HK+사업단장)

## 1. 서론

이 연구는 근대 한·중·일 번역 서학서의 유통 상황을 통해 서양인의 동아시아에 대한 시각이 어떠했으며, 그 결과 동아시아의 근대 지식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규명하며, 그 과정에서 서양인의 역할을 연구하는 데 목표를 둔다.

근대 동아시아에서의 번역 서학서는 지식 유통 경로나 방식, 유통 양상 등이 시대 상황에 맞게 다양한 모습을 띤다. 중국의 경우 명말·청초부터 시작된 서양서 번역이 아편전쟁 직후인 1850년대부터 활발해지며, 1850년대 실용지식전파회 성립, 1868년 강남 제조총국 번역국 설립, 1887년 광학회 등으로 이어지면서 비교적 방대한 번역 서학서가 산출된다. 일본에서의 서학서 번역은 1770년대 『해체신서(解體新書)』라는 네덜란드어 해부학 번역서가 등장하고, 오규 소라이(荻生徂來)의 『역문전제(譯文箋蹄)』(1753년 澤田吉左衛門 발행), 1847년 우다카와 요안(宇田川榕菴)의 『세이미가이소(舍密開宗)』라는 번역 화학서가 출현하는 등 중국과 다른 경로를 보일 때가 많다. 비록 메이지 시대를 전후하여 상하이(上海)와 나가사키(長崎)의 긴밀한 지식 통로가 형성되지만, 서구 지식의 유입과 유통 과정에서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이에 비해 개항이 늦은 한국의 경우, 전통적인 연행사와 통신사의 지식 유입 경로에서 1880년대 일본과 중국 이외에 선교사를 통한 새로운 지식 유입 통로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동아시아 근대 지식의 확장 양상은 지식 유입과 유통 양상뿐만 아니라 지식 수입 방식에도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근대 동아시아 번역 서학서 유통과 지식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선교사나 외교관을 중심으로 한 서양인들의 역할이 적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근대 번역 서학서의 실체를 대상으로 근대 지식의 확장 과정에서 서양인의 역할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둔다.

## 2. 근대 동아시아의 번역 서학서와 지식 유통 양상

1880년 6월 존 프라이어(중국명 傅蘭雅)가 저술한 『역서사략(譯書事略)』의 서문을 살펴보면 “강남 제조국 내 번역관을 설치한 지 10여년 원근 여러 친구들이 그 일을 들은 바 있으나, 일의 본말과 이로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일찍이 서양 사람의 서적을 찾아 살피고자 한다면 이 서적관이 원류(源流)가 된다.”<sup>1)</sup>라고 하여, 중국에서의 번역 서학서 유통과 상해 강남 제조총국(江南製造總局) 번역관(翻譯館) 설립이 중국에서의 서양 근대 학문 수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밝히고 있다.

『역서사략』은 번역관의 유래를 밝힌 ‘논원류(論源流)’, 번역 방법을 논한 ‘논역서지법(論譯書之法)’, 역서의 이익을 논한 ‘논역서지익(論譯書之益)’, 역서의 종류와 목록을 적은 ‘논역서각

1) 傅蘭雅(1880), 『譯書事略』, 序.

수목여목록(論譯書各數目與目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원류’에서는 번역관의 핵심 인물로 서수(徐壽)와 화형방(華蘅芳)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두 사람은 1855년 상해(上海) 묵해서관(墨海書館)에서 만난 적이 있으며, 마테오리치(중국명 利瑪竇) 이후 서양의 격치서에 관심을 갖고 1862년 증문정공(曾文定公: 曾國藩)의 천거에 따라 번역 업무를 맡기 시작했는데, 1868년 번역관 창설 이후 서양서 번역의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설명으로 볼 때 중국에서의 서양서 번역은 16세기 마테오리치 이후 1800년대 중반까지 『기하원본(幾何原本)』, 『대미적(代微積)』(알렉산더 와일리, 중국명 偉烈亞力 번역), 『중학(重學)』(요셉 에드킨스, 중국명 艾約瑟) 등 다수가 존재했으나, 번역관 설립 이후 그것이 체계화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역서사략』 제4장 ‘논역서각수목여목록’에서는 ‘이미 간행하여 판매하는 서적명’(제1류), ‘번역했으나 간행하지 않은 서적명’(제2류), ‘번역을 진행했으나 전체를 번역하지는 못한 서적명’(제3류)을 종합하여 기간(既刊) 98부 225본, 상미간(尙未刊) 45부 142본, 미역전서(未譯全書) 13부 43본을 제시하였다. 이 수목(數目)에서 ‘본(本)’을 ‘책(冊)’을 의미하는 것이며, 부(部)는 종수(種數)를 의미한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역서사략』의 ‘수목’과 ‘목록’은 1880년까지 중국에서 유통된 번역 서학서의 대략적인 상황을 보여준다<sup>2)</sup>.

이러한 흐름에서 188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번역 서학서 유통과 관련한 주요 자료 가운데 하나는 ‘광학회 서목(廣學會 書目)’이다. 광학회는 1887년 상해에서 영국인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단체로, 처음 조직할 때는 ‘동문서회’였다. 윌리엄슨(중국명 韋廉臣), 알렌(중국명 林樂知), 하트(중국명 赫德) 등이 중심이 되어 “중국의 양민법(養民法)을 위해 서양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한 목표로 출발한 광학회는 1892년 각 지역에 분회를 두어 활동할 정도로 서양 지식 보급에 큰 역할을 하였다. 1893년 8월 『만국공보(萬國公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단체의 번역 서학서는 대략 90여 종(리처드, 중국명 李提摩太의 미인출본 포함)이었는데, 1907년 8월에는 264종으로 늘어난다<sup>3)</sup>.

일본에서의 서양 문명은 천정(天正)·경장기(慶長期)(1573~1615) 서양인이 일본에 오면서 전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 전해진 의학을 남만류(南蠻流)라고 한다. 난학 번역 과정의 어려움을 회고한 스기타 겐파쿠(杉田玄白)의 『난학사시(蘭學事始)』에 따르면 이 시기를 전후하여 막부가 네덜란드 배의 상륙을 허가했으며, 이들 상선을 타고 온 외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네덜란드류 외과’가 성립되었으며, 그들의 수술법을 목도하면서 서양의 외과 기술이 유입되고, 그 과정에서 네덜란드어 학습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sup>.

난학의 유입 과정에서 처음에 막부는 서적 유입을 금지했는데, 1720년 도쿠가와 요시무네(德川吉宗, 1684-1751)가 금지령을 완화하면서 네덜란드 학술 서적이 일본에 유입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의 서양서 번역은 스기타 겐파쿠(杉田玄白)·마에노 료타쿠(前野良沢)에 의해 번역된 『해체신서(解體新書)』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책은 네덜란드 의학에 관심을 갖던 겐파쿠가 번역을 결심하고, 네덜란드어를 알고 있던 료타쿠가 주도적으로 번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sup>5)</sup>, 그 당시 네덜란드 의학 용어에 해당하는 일본 학술어가 없었으므로 번역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존재했던 것이다.

일본의 근대화가 번역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가노 마사나오(鹿野政直)의 『근대 일본

2) 이에 대해서는 허재영(2019), 근대 중국의 서학 수용과 한국에서의 번역 서양서 수용 양상, 『어문학』 144(한국언어문화회, 305-312)에서 소개한 바 있다.

3) 허재영(2019) 위의 논문, 312-315 참고.

4) 杉田玄白·緒方富雄 校註(2018), 『蘭學事始』, 岩波書店, 11-13.

5) 홍성준(2019), 서양 지식의 전달을 위한 번역의 시작과 그 양상, 『지식 산출의 기반으로서 근대 번역의 기능』, 평사리.

사상 안내(近代日本思想案内)』에서도 확인된다. 이 책에서는 일본의 근대사상이 메이지 이후 본격화된 계몽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메이로쿠샤(明六社)를 비롯한 계몽 운동이 사상뿐만 아니라 번역어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난학에 기반을 둔 근대 일본의 서양서 번역은 1800년대 ‘난화(蘭和)·영화(英和) 사전’ 편찬과 함께, 문부성 『백과사전』 번역의 기반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sup>6)</sup> 이는 메이지 이전 일본의 서양서 번역이 활발했음을 보여준다.

근대 일본에서 서양서 번역에 관한 전반적인 모습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야마오카 요이치(山岡洋一, 2004)에서는 19세기 후반의 일본 근대화 시기를 ‘대번역시대(大翻譯時代)’라고 명명하면서, 1868년부터 1882년까지 대략 1만 종 가까운 번역서가 출판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sup>7)</sup>. 이뿐만 아니라 일외아소시에쯔 주식회사(日外アソシエーツ株式会社, 2017)에서 편찬한 『번역도서목록(翻訳図書目録)』을 참고하면 메이지·다이쇼·쇼와 전전기(明治·大正·昭和戦前期) 총기·인문·사회(総記·人文·社会) 15,807점, 과학·기술·산업(科学·技術·産業) 4,962점, 예술·언어·문학(芸術·言語·文学) 12,436점 등이 정리되어 있음을 볼 때, 일본 근대화와 번역을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서양 지식 유입은 1600년대 통사(通事)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이규경(李圭景)의 『오중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경사편(經史編) 3 석전류(釋典類)3’의 ‘서학(西學)’이나 ‘경사편 6 논사류(論史類)1’의 ‘서양이 중국과 통상한 것에 대한 변증설’ 등에서도 비교적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능화(1927)의 『조선기독교급외교사(朝鮮基督教及外交史)』에 따르면 한국인으로 서양 사정에 처음 접한 사람은 1520년(중종 15) 이석(李碩)이었으며, 1600년대(선조~광해 연간) 이수광(李睟光)의 『지봉유설(芝峯類說)』에 불랑기(佛朗機)국과 영결리(永結利)의 문물이 기록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 잠곡 김육(金瑬)의 시헌력 채용, 명국 최석정(崔錫鼎)의 건상곤여도병 수용, 이승훈의 수학서(修學書) 및 의례 기기 도입, 이광정(李光庭)의 구라파 곤여도 도입, 정두원(鄭斗源)의 서적 수입<sup>8)</sup> 등이 있었으나, 이들 서적(또는 지도)은 모두 중국에서 만든 것들이었다.

따라서 1880년 수신사(修信使) 김홍집(金弘集)이 가져온 황준헌(黃遵憲)의 『조선책략』이나 정관응(鄭觀應)의 『이언(易言)』 등과 같이 중국인 저술서, 1881년 조사시찰단(朝使視察團)의 보고서에 등장하는 일본의 제도와 교과서로 사용하는 번역 서학서, 조사시찰단을 수행했던 어윤중(魚允中) 등이 상해 제조총국을 방문하고 견문한 번역 서학서, 1881년 영선사로 파견되었던 김윤식(金允植)이 견문한 번역 서학서 등과 같이, 한국에 서양 사정이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1880년대 이후의 일로 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이 시기 한국에 수용된 번역 서학서는 대부분 중국어로 번역된 것이었으며, 같은 시기 활발했던 일본의 번역서들이 국내에 유입된 것 같지는 않다. 예를 들어 1883년 창간된 『한성순보』의 경우 상당수의 기사원(記事源)이 중국에서 발행된 신문과 번역 서학서인데, 이들 기사는 중국 서적을 편집(編輯)하거나 전재(轉載)한 것들이 많다<sup>9)</sup>.

6) 長沼美香子(2012), 開化啓蒙期の翻訳行為 : 文部省『百科全書』をめぐって, 『翻訳研究への招待』7, 日本通訳翻訳学会.

7) 山岡洋一(2004), 15年に数千点 - 明治初期の大翻譯時代, 『翻訳についての断章』 (<http://www.honyaku-tsushin.net/ron/bn/maiiji.html>). 이 글에서는 일본 각 대학도서관 소장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국립정보학연구소의 웹 플러스 자료를 인용하여 1만 종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8) 정두원(鄭斗源)은 『치료연기』 1책, 『이마두(마테오리치) 천문서』 1책, 『원경서』 1책, 『천리경설』 1책, 『직방외기』 1책, 『서양 풍속기』 1책, 『서양국 공헌신위대경소』 1책, 『천문도 남북극』 2폭, 『천문광교』 2폭, 『만리전도』 5폭, 『홍이포제본』 1본 등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9) 이에 대해서는 허재영(2019), 근대 한국에서의 번역 서학서 수용과 학술어 사용 양상, 『인문사회과학』

1880년대 한국에서의 번역 서학서 유통 상황을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어윤중(魚允中)의 『종정연표(從政年表)』(고종 18년 신사 9월, 1881)에 등장하는 ‘유서분(劉瑞芬), 진보거(陳寶渠), 정관응(鄭觀應), 이홍장(李鴻章)’ 등과의 만남은 일본을 통해 번역 서학서가 들어왔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으며, 김윤식(金允植) 『음청사(陰晴史)』(1882. 임오, 4월)의 강남 제조총국 번역관 견학 기록은 중국을 통한 번역 서학서 유입 가능성을 높여 준다. 이뿐만 아니라 『한성주보』 제3호(1886.2.15.) ‘신래서적(新來書籍)’과 같이 외국인이 상해에서 신역(新譯)된 서적을 직접 구입하여 전래한 사례도 나타난다. 이 기사에 따르면 그 당시 독일 영사 부들러(卜德樂)는 상해에서 자비로 번역 서학서 200종을 구입하여 외아(外衙)에 보냈는데, 이는 박문국(신문국)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10</sup>). 그런데 그 당시 일본에서 번역된 서양서의 유입은 일본인 거류민(居留民)을 제외하면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까닭은 그 당시 한국의 지식 사회가 한문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즉 중국어로 번역된 서학서는 한문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일본어로 번역된 서적은 별도로 일본어를 학습하지 않을 경우 독해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본격적인 서양 지식의 유입은 1895년 갑오개혁 이후에 전개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근대식 학제의 도입이나 서양인과의 접촉이 이전 시대보다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학제 도입과 함께 개발된 다수의 교과서가 번역 서학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태서신사남요(泰西新史攬要)』(馬瑟西 著, 李提摩太 口譯, 蔡爾康 筆述), 『공법회통(公法會通)』(헨리 휘튼 著, 丁驥良 譯), 『서례수지(西禮須知)』(傅蘭雅 著, 李提摩太 譯) 등의 학부 편찬 교과서가 이에 해당한다. 흥미로운 점은 학제 도입 당시 교과서 편찬에 다카미 가메(高見龜)나 아사카와 마쓰지로(麻川松次郎)와 같은 일본인이 편집 보좌원(補佐員)으로 활동했음<sup>11</sup>)에도 교과서 내용은 일본에서 번역한 것보다 중국의 번역 서학서를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19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서양 지식 유통은 1) 중국의 번역 서학서(또는 중국인 저술)를 통한 것, 2) 한국에서 번역한 것, 3) 서양인이 직접 가져온 것 등으로 다양화 되는데, 이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는 발견할 수 없으나 허재영 엮음(2017) 『근대 계몽기 학술 잡지의 학문 분야별 자료 -부록』(경진)에서 밝힌 바와 같이 1895년부터 1912년까지 교과(教科)를 목적으로 편찬된 도서가 900여 종에 이르며, 그 가운데 상당수의 번역서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근대 동아시아에서의 서양서 번역 방식과 서양인의 역할

서양의 근대화가 자국어 성경 번역으로부터 출발한 것처럼, ‘자국어(自國語)’, ‘민족주의(民族主義)’ 등은 근대화 여부의 주요 표지(標識)로 작용한다. 이는 동양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의 번역 서학서, 일본의 서양서 번역, 한국에서의 근대 번역 등은 모두 근대의 지식 교류뿐만 아니라 지식 생산의 주요 수단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3국의 언어와 문화가 다르듯이 근대의 번역 문제나 번역 문화도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의 경우 ‘서학중원론(西學中源論)’에서 빈번히 확인되듯이, 서양 학문을 중국 전통 학문

연구』20-3, 부경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69-72를 참고할 수 있다.

10) 『漢城周報』1886.2.25.(第3號), 新來書籍.

11) 學部(1895), 『尋常小學』, 序. “茲에 日本人 補佐員 高見龜, 麻川松次郎으로 더부러 小學의 教科書를 編輯할시 天下萬國의 文法과 時務의 適用을 者를 依樣하야”.

(또는 문화)에 견주어 해석하고자 하는 경향이 우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종교나 사상적인 관점에서 서양의 기독교(基督)의 신(神)과 중국의 '상제(上帝)'를 견주어 표현하고자 한 것이나(天主라는 용어 생성도 같은 맥락으로 파악됨), 량치차오와 같이 서양 계몽사상과 묵자(墨子)를 연계하여 해석하고자 한 경향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양 문화를 기반으로 한 서양의 인문, 사회, 자연과학 지식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문제가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번역상의 문제에 관하여 『역서사략(譯書事略)』에서 “명나라 때 마테오리치 등 여러 사람과 지금 역서를 하는 사람이 모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어려움이 있어 번역을 중단한다.”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명목을 정하는 일(번역 용어를 만드는 일)'임을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즉 기존에 없던 개념을 중국어로 옮기기 위해서는 중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바탕으로 번역 대상 개념을 변용해야 한다. 이는 이른바 '격치서(格致書)'뿐만 아니라 '경학서(經學書: 상당수는 종교서)' 모두가 해당한다. 1880년 저술 『역서사략』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중국에 이미 존재하는 명사를 응용하는 방법', '중국에 없는 개념을 새로 만드는 방법', '중국과 서양의 자휘(字彙)를 만들어 대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번역 과정에서는 없는 개념을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을 만들거나 문자를 창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격치휘편(格致彙編)』 1876년 7월호 '기기명명설(機器命名說)'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논설에서는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가장 일반적인 원칙이 '가차(假借)'이며, 그 다음은 '지사(指事)'와 '회의(會意)'라고 하였다. '화륜선(火輪船), 화륜기(火輪器), 기기운선(機器輪船)' 등과 같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사물을 지시하는 용어나 '과로(鍋爐), 연통(煙筒), 매당(煤堂), 경기(輕氣), 양기(養氣)' 등의 용어가 사물과 물질의 특성에 따라 생성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화학감원(化學鑑原)』의 '원질(原質: 元素), 잡질(雜質), 애력(愛力: 引力)'이라는 신조어, '석(矽: 규소 Si), 납(鈉: 나트륨 Na), 개(鈣: 칼슘 Ca), 미(鎂, 마그네슘 Mg)' 등과 같이 신문자(新文字)를 창조하기도 하였다. 신문자 창조의 기본 원칙은 물질의 속성을 기준으로 했는데, '석(碩)'은 '석류(石類)'에 속하는 물질이므로 '석(石)'에 '석(夕)'을 합쳐 쓰고, '납(鈉)'은 '금류(金類)'에 속하므로 '금(金)'에 '내(內)'를 합쳐 쓰는 원리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근대 일본에서도 상황이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다. 홍성준(2019)에서 밝힌 것과 같이, 『해체신서(解體新書)』 '범례'에는 '글을 옮기는 세 가지 방법'이 등장하는데, '번역(翻譯), 의역(意譯), 직역(直譯)'이 그것이다. 이때 등장하는 '번역'은 현대 번역학의 관점으로 볼 때 외국어와 자국어의 등가 번역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의미하며, '의역'은 의미를 기준으로 자국어에서 새로운 표현을 찾아 번역하는 것을 의미하고, '직역'은 자국어에 없는 표현을 만드는 것을 지칭한다. 『해체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어 'beenderen'을 '뼈[骨 こつ]'로 번역할 경우 '번역', 'kraakbeen'(부드러운 뼈, 加蠟飯骨)을 '연골(軟骨: 부드러운 뼈, 특히 脛의 의미를 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음)'로 번역할 경우 '의역', 'klier'와 같이 기존에 없는 개념을 '키리이루[腺]'처럼 새로 만들어 번역할 경우 '직역'이라고 부른다. '범례'에 등장하는 '직역'의 경우 새로운 표현을 찾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음역(音譯) 방식을 따를 경우가 많다. 즉 중국의 '가차(假借)' 방식이 적용되는 셈이다<sup>12)</sup>.

근대 한국에서도 번역 방식에 대한 편린(片鱗)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한성주보(漢城周報)』 1886년 6월 31일자(제22호) '스페인 사름 마르미아가아다린짓그를 차진

12) 김동기(2003), 일본의 근대와 번역, 『시대와 철학』14-2,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63-290. 이 논문에서는 근대 일본의 번역 방식을 ① 난학자(蘭學者)의 역어 차용, ② 중국어 역어 차용, ③ 고전 중국어 전용, ④ 신조어 만들기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속고'이다. 이 논설에서는 인지명을 중국의 번역 사례에서 찾아 대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지명 대조는 『태서신사남요』의 '인지제명표(人地諸名表)'에도 등장한다. 즉 번역 과정에서 인명과 지명은 자국어에 없는 개념에 해당하므로, 한·중·일 3국 모두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 셈이다. 이와 같이 근대 번역에서 한·중·일 3국은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방식(번역어 생성과 확산 등)에서 공통점을 보일 경우도 많다.

그러나 한·중·일 3국의 근대 번역은 번역이 활성화된 시점, 번역 문화 등에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경우 16세기 마테오리치 이후 서학서 번역이 시작되고, 아편전쟁 이후인 1850년대 이후 본격적인 서학서 번역이 이루어지거나 그 과정에서 '실용지식전파회', '익지서회', '미화서관', '광학회' 등 서양인의 역할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중국의 번역 문화에서 독특한 점은 이른바 '구역필술(口譯筆述)'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는 중국어를 익힌 서양인이 입으로 번역하고 중국인이 필술(筆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1868년 설립된 강남 제조총국 번역관의 번역 방식은 대부분 이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의 근대 번역은 난학의 전통을 이어, 새로운 개념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문제에 집중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일본어의 근대화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초대 문부대신 모리 아리노리(森有禮)의 '일본어 폐지, 영어 채용론'과 바바 다쓰이(馬場辰猪)의 모리에 대한 비판<sup>13)</sup>은 외국어 습득과 번역상의 어려움 등이 종합적으로 표출된 사건으로 볼 수 있으며, 근대 일본어의 발달과 지식 사회의 성장에 따라 서양인의 조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번역 문화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근대 한국의 경우 1882년 지식영의 '개화 상소문', 1888년 박영효의 '건백서' 등에서 국문 번역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언급된다. 그러나 이 시기 국문 번역은 조선시대 '언해(諺解)'의 전통을 이은 『이언(易言)』 정도에 그치며, 중국의 번역 서학서(심지어는 험버트의 순국문 『스민필지』 포함)에 대한 한역서(漢譯書)가 등장할 정도로 국문 번역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 후 1894년 갑오개혁과 함께 '칙령 제1호'의 '국문위본(國文爲本)'이 천명되고, 국문 번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양이 많지 않다. 더욱이 이 시기 번역서는 이른바 '역술(譯述)'로 표현되는 발췌 번역이 많고, 중국어나 일본어로 번역된 것을 다시 번역하는 '중역(重譯)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기 역술서(譯述書)는 번역 대상 서적이 어떤 것인지 밝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한국의 근대 번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지식 교류의 미흡', '한문 기반의 지식 사회', '근대 한국어 규범의 미발달(未發達)'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1900년대 이후 국권 침탈과 애국계몽운동 그리고 국권 상실기의 민족 운동 등을 통해 국문 규범이 확립되면서, 점진적으로 번역 문화도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언더우드, 험버트, 게일 등과 같이 한국 선교 및 교육 보급 사업에 관심을 기울였던 다수의 선교사들의 역할은 주목할 만한데, 이들은 모두 성경 번역과 교과서 편찬, 서양서의 한국어 번역에 힘을 썼던 인물들이다.

#### 4. 결론

이 글은 근대 한·중·일 번역 서학서의 유통 상황을 통해 서양인의 동아시아에 대한 시각

13) 이에 대해서는 이연숙 저, 고영진·임경화 옮김(2006), 『국어라는 사상』(소명출판) '서장'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어떠했으며, 그 결과 동아시아의 근대 지식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규명하며, 그 과정에서 서양인의 역할을 연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출발했다. 주제가 매우 거시적이어서 동양 3국의 근대 지식 사회 변천을 세부적으로 고찰하기는 어려우나, 서양 지식의 수용 과정에서 3국 모두 '번역'의 문제가 등장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 나름대로의 방책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좀 더 고찰해야 할 문제는 이들 번역 서학서가 미친 영향에 관한 것들이다. 중국과 일본은 그만두고라도 한국의 경우 1883년 창간된 『한성순보』, 1888년 이승희(李承熙)가 저술한 『몽어유훈(蒙語類訓)』, 1891년 지식영의 『신학신설』 등에는 번역 서학서가 직접 언급되거나 서학서에 있는 내용이 반영된 경우가 많다. 1900년대 이후 역술서(譯述書)에서도 번역 대상 서적을 알 수 없지만 서양 지식이 발췌 번역을 통해 수용된 사례가 매우 많으며, 1906년 이후 애니 베어드(한국명 安愛理) 등이 번역한 『동물학』, 『식물학』, 『심리학초보』 등은 명료하게 번역 대상서와 번역자, 조력자 등을 표현하여 지식 수용 과정에서 번역이 본격적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합니다.